

게시판



노인복지센터서 대학생 작품전 서울 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는 11월 8일 까지 홍익대 조소과 학생들과 공동으로 '안국역 5년출구' 출판작품전을 연다(사진). (02)739-9501

청담문화원 어린이 교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에서 운영하는 청담문화원에서는 매월 1일 피아노 교실, 영어교실, 속성교실 등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02)806-1377

독거어르신들기 바자회 의정부 송산 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석봉)은 11월 2일 지역 독거 어르신들기 바자회를 연다. 의류, 신발, 생필품, 먹거리 등이 출품된다. (031)852-2595

복지타운 건립기념마련 장터 송기원 (이사장 종범)은 11월 2일 봉은사에서 자비복지타운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장터를 진행한다. (02)928-0750

어르신 노래선생님 모집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전승범)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1시간동안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02)3494-4755

급식봉사자 모집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명궁)은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간 급식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봉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02)989-4215

20면 상식 퍼즐 정답

만	리	장	성		
복		선	무	당	
사	미	실	랑		
			권	법	
		말			치
	직	접	선	거	국
				상	종
					가



폐교 맞아요?

폐교 개조해 만든 다양한 문화공간

늦가을은 유난히 사람을 쓸쓸하게 만든다. 골러가는 낙엽에도 마음이 울적해지는 때, 살짝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현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몇 년 전부터 농촌지역의 폐교를 이용해 조성한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다. '폐교'라고 하면 으레 쓸쓸한 느낌을 갖지만 오히려 아늑함을 안겨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 세대에게는 시골 학교의 정다운 추억이 살아날 정도,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기 안성맞춤이다. 폐교 문화공간들이 대체로 한적한 농촌에 있다보니 현대인들의 원초적 향수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폐교 문화공간들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 또는 연락이 필수다. 가끔 전시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예고 없이 휴관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꼼꼼하게 폐교 문화공간이 위치한 지역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지역 정보를 확인해두면 즐거운 '폐교 여행'을 할 수 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울산꽃학습원



울산교육시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울산꽃학습원. 5800평 대지에서 자라는 오토나투를 비롯한 300여 종의 수목, 금강화를 비롯한 230여종의 화초, 농작물 70여종까지 약 600여종의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주로 남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야생초들을 직접 만나보는 뜻깊은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아동·성인을 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도 마련돼 식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쌓을 수 있다. 메모지와 필기 도구는 필수. 11월 4일과 18일 열리는 들꽃교실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052)211-9163, www.uesri.re.kr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강화 양당초등학교 자리에 문을 연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공룡의 모습부터 심상치 않다. 아이들에게는 공룡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인기 만점. 자연사박물관이지만 너무 무겁지만은 않은 분위기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볼거리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아울러 마련된 7개의 전시실에서 조류, 곤충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이지만 자연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물웅덩이 등도 마련돼 있다.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카페를 이용하면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032)934-8872-3, http://cafe.daum.net/eunammuseum

양평 가루니 장승촌



전해대장군, 지하어장군, 당산할아버지, 범수. 이는 모두 장승을 일컫는 말이다. 양평 단월초등학교를 개조해 장승박물관을 만든 장승촌에 가면 장승의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직접 장승을 깎는 '촌장' 채용병씨는 "장승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숨결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장승촌에서는 채씨가 만든 지역별, 유형별 장승들도 만나볼 수 있지만 직접 깎고 만드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다.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민속 공예를 경험하는 와중에 '우리 것'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031)775-3422, www.garuni.com

화성 창문아트센터



아이들에게 단계로 미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화성 창문아트센터는 창문초등학교에 세운 곳. 어린이들을 위한 벽화그리기, 활흙 빚기, 놀이터 만들기 등 산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문아트센터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꿈, 상상력을 지켜주는 것이다. 기교보다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교육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여기서 어린이들의 농촌체험도 가능하다. 창문아트센터는 단체예약을 통한 교육만 가능하다. 11월 6일까지는 '창문자연예술제'가 열려 관심 있는 이들의 방문이 좋을 것 같다.

(031)355-2206, www.changmoonart.com.ne.kr

영천 시안미술관



탁트인 외관, 아늑한 카페테리아 같은 실내공간. 정말 이 곳이 학교였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곳은 99년 폐교된 영천 화산초등학교 가산분교를 리모델링해 이제 지역 미술관으로 우뚝 선 시안미술관이다. 2004년 개관했지만 굵직한 미술전들을 통해 유명 미술관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문턱이 높은 미술관은 아니다. 시안미술관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작가가 직접 이야기해주는 '전시 프리뷰 프로그램' 등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지미술과 섬유예술전'이 열리고 있다.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휴관.

(053)338-9391, www.cyanart.co.kr

정선 추억의 박물관



폐광촌에서 고향을 지키는 박물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은 '향수' 그 자체가 된다. 이 박물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민요, 고문서 등 다양한 우리 옛것이다. 여기에 폐광촌이라는 점을 살려, 광업에 관련된 자료까지 구비하고 있어 이색 박물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물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인근 신동읍에서 물건을 2000원 이상 구매해야 한다. 그 영수증이 있으면 박물관 입장권과 교환이 가능한 것. 지역 박물관과 상인들 사이의 훈훈한 인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033)378-7856, www.ararian.com



환상-공상-현실 오가는 무의식의 세계

스테이 감독: 마크 포스터 출연: 이완 맥그리거, 나오미 왓츠 장르: 스릴러 상영시간: 100분 등급: 15세 이상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할까? 불교의 화엄법계로 접근할까? 영화 '스테이'를 100% 소화하려면 이 두 개의 화두부터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영화 '스테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무의식의 세계를 환상과 공상과 현실의 트라이앵글에 몰아 놓고 매우 복잡하게 사건을 풀어 간다. 다시 말해 이 영화는 분명한 캐릭터 설정과 명확한 시·공간적 배경을 비롯하더라도 허둥지둥 어지럽지만 하다. 복선과 등장인물과의 연결 고리는 예측 불허며 영화 속에서 꿈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곧 환상으로 변하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며 미묘한 심리 과정을 그린다.

맨하탄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샘은 예지 능력과 기시감을 지닌 헨리에게 흥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던 중 헨리는 3일 후 자신의 21살 생일날 자살하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남기고 사

라진다. 헨리를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 나선 샘. 그러나 그 순간부터 샘은 초현실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은 헨리의 어머니와의 만남 등 삶과 죽음의 경계와 혼란에 빠지고 기이한 일들은 계속 벌어지는데...

인간은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를 영원히 알 수 없으며 '억눌려 있던 무의식의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영화. 과연 영면에 잠든 프로이드를 눈뜨게 할 만큼 정신분석의 논리를 정확히 적용시켰는지는 의문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전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나무

11월 2~8일 '자연의 초상-김경렬전'

우리나라의 나무를 주 소재로 우리 삶의 모습을 되새겨보는 전시 '자연의 초상-김경렬전'이 11월 2-8일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3층에서 열린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하는 나무의 4계절이 김경렬씨의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경남 하동 뽕나무의 봄, 전남 순천의 꽃 맺힌 매화나무, 삼척 은나무, 서울 구기동 은행나무, 서울 진관외동 은행나무, 충북 괴산 느티나무 등이 모델이 됐다.

증명사진을 찍듯 정면으로 나무와 구름을 그렸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성격, 지나온 역사를 끌어내기 위해 나무 표면을 두터운 물감의 질감으로 툴러를 이용해 처리했다. 사실적인 묘사는 최소한으로 그렸다.

미술평론가 이주현씨는 김경렬씨의 나무 그림에서 희망의 기운을 찾는다. "그의 나뭇가지는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간혹 표현되는 구름 이미지는 세상을 향한 나무의 희망"이라고 설명한다. (02)736-1020 김지연 기자



김경렬씨 작품 '겨울나무-희망을 기다리며'

공연

한-일 전통 타악과 춤이 만난다

무용음악극 '하얀 도성사'

한국의 전통 타악, 사물놀이와 장이 일본의 대표적 전통 타악 노(能)와 만났다.

사단법인 한울림(대표 안숙선, 예술감독 김택수)이 주최하는 무용음악극 '하얀 도성사'가 11월 3일과 4일 호암아트홀에서 공연된다.

한일수교 40주년과 한일우정의 해 2005 기념사 업공연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공연은 재일동포 2세 한국무용가 김리혜(무형문화재 27호 승무, 97호 살풀이춤 이수자)가 각색과 안무는 물론 춤까지 선보인다.

'도성사(道成寺)'는 일본 최초의 역사서인 고지키(古事記)에 나오는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설화이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공연 장르인 노(能), 가부키(歌舞伎), 분라쿠(文楽)의 형식으로 자주 공연되는 등 사랑받는 작품이다.

이번에 공연되는 '하얀 도성사'는 한국적 시각으로 일본 전통 설화를 재해석하여 한국 춤으로 공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얀 도성사'는 2003년 일본 초연 후 한국 무대에 처음 올려지는 작품. (02) 2232-7952



한국무용가 김리혜씨의 '살풀이춤'

방송 프로그램

<p>31일 06:25 오늘은 좋은 날</p> <p>1일 05:10 '참 부자의 깨달음'</p> <p>2일 15:00 음악의 마음</p> <p>3일 11:05 아름다운 초대</p> <p>4일 21:05 영화음악실</p> <p>5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p> <p>6일 18:15 불교 음악의 세계</p>	<p>31일 21:10 한국의 명찰</p> <p>1일 02:40 불교TV스페셜</p> <p>2일 15:50 열린마당</p> <p>3일 19:30 TV법회</p> <p>4일 15:10 휴먼다큐</p> <p>5일 07:30 조선불교탄양사</p> <p>6일 16:50 디스커버링다춤</p>
---	--

시청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전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불교 음악의 세계(11월 6일 18:15-19:00) '세계 불교음악 백화점'에서 불교음악의 모든 것을 만나보는 시간. 찬불곡, 불교 관련 명상음악, 찬불용어, 중국·타베트·베트남 등의 불교 관련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불교음악 한 소절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불교텔레비전: 염영관 장미화의 행복충전(11월 5일 17:30-18:30)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염영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들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속 재밌는 해프닝도 소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황금 달마도 액자

달마도가 필요했던 불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마하물에서 도형 김원규 화백의 황금달마도를 판매하는 것이다. 유명 화가가 직접 정성스럽게 그려낸 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더욱 좋다.

달마도의 모양은 황금금부를 쓰고 있는 달마와 일반 달마의 모습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 크기 또한 다양하게 준비 돼, 4호(41cm x 54cm), 6호(49cm x 60cm), 8호(55cm x 66cm), 선택의 폭이 넓다. 가격은 6~8만원. 액자까지 포함된 가격이다.